

디아스포라 글쓰기로서의 이민진 소설 『파친코』 번역: 수사학적 상황을 중심으로

정민경
(연세대)

1. 서론

발터 벤야민은 *The Task of the Translator*에서 “번역은 모드(a mode)”라고 주장하며, 번역의 주요 목표는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언어’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Benjamin 1968: 1). 이는 원문의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사회문화적 맥락까지도 포괄하는 깊이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학 번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학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디아스포라적 경험을 문학에 반영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층위의 독자들을 고려하는 번역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을 넘어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다층적인 의사소통 모드(mode)로 발전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용어는 본래 유대인 사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며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특히 이 용어는 1991년 *Diaspora* 학술지 창간을 계기로 서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윌리엄 샤프란은 *Diasporas in Modern Myths of Homeland and Return*에서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체계화하며 이산, 조국에 대한 기억과 비전의 공유, 정주국에 대한 소외감, 모국과의 유대감 등을 특성으로 언급했다(Safran 1991: 83).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은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의 디아스포라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관점의 연결점은 번역이 단순한 언어적 행위를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포괄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디아스포라 문학 번역은 언어를 바꾸는 것 이상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디아스포라적 경험과 그와 연관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섬세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작품이 담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정서, 역사적 배경을 새로운 언어와 문화적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복잡하고 창조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한국계 미국 작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그랜드 센트럴 출판사)는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소설은 재일교포의 삶을 다룬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재일 조선인 가족의 어려운 삶과 한국, 일본, 미국 간의 문화적 교차를 섬세하게 묘사한다. 파친코는 출간 직후 화제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 한국계 미국 작가 미셸 자우너가 쓴 『H마트에서 울다』가 또 한 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품은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들은 원작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다양한 번역 과정 및 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원문의 문화적 정체성과 타깃 문화의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 번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 전략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소설 『파친코』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번역본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번역 과정에서 수사학적 상황(rhetorical situ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번역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2. 이론적 배경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의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간극을 다루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의 ‘귀화(naturalizing)’와 ‘외화(alienating)’의 개념에 크게 영향을 받은 베누티는 번역 과정에서 출발어(ST)와 도착어(TT)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번역이 자국화 전략을 따르는지, 아니면 이국화 전략을 따르는지를 판단한다. 그는 이국화 번역이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이국화 번역이 타 문화권 독자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이 이항 대립(binary opposites)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독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탐색적 개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Venuti 2000: 468-469).

수전 베스넷(Susan Bassnett)과 안드레 르페버(Andre Lefevere) 등은 이러한 베누티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자국화와 이국화 이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모호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는 문학 번역 과정에서 특정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더 깊이 있는 문화적, 사회적 고려를 필요로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번역가는 원문의 의미와 스타일을 유지하는 동시에, 타깃 문화의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품을 재해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문학 번역에서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번역가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동안 한국 번역학 논문에서도 다양한 문학 번역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번역 전략은 이형진(2011)과 이상빈(2014)의 연구를 통해 상세히 다뤄졌다. 앞서 이형진은 한국계 미국 작가 이창래의 소설 *Native Speaker*의 두 가지 다른 번역본을 분석하여 번역가의 관점이 번역본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 번역가의 선택과 해석이 작품의 전달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했다. 이상빈(2014)의 연구는 동일 작품의 한글 번역본을 분석하며 문화번역을 위한 다양한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의 조합을 통한 의미 및 형태 손실 최소화, 특

정 문화적 내용이 소실되었을 때 보충 전략(compensation) 등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누티의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의 적용과 그에 대한 고찰은 이상원(2011)의 연구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진 바 있다. 이상원은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가 언어적 표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국화와 이국화 개념을 우리의 번역 사례 분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 맥락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할 수 있다. 베누티는 유창하고 투명한 번역이 대세이자 규범으로 자리잡은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의 방식으로서 이국화 전략을 호소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유창하고 투명한 번역이 대세를 이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베누티의 이국화가 그대로 우리의 이국화가 될 수는 없다. 무엇이 우리의 자국화이고 이국화인지는 베누티 논의의 상황 맥락과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이상원 2011: 124)

비록 번역 연구에서 위와 같은 “보충 전략”, “상황 맥락 비교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은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번역가들은 두 전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는 종종 복잡하고 난해한 과제로 여겨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작과 번역본의 수사학적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수사학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자국화와 이국화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번역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더욱이, 이 같은 번역 연구는 문학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적 통찰을 제공하며, 번역가들이 원문의 복잡한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은 결국 ‘상황(situation)’에 대한 전략이다. 자국화는 번역본을 대상 언어와 문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도착어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제공하는 반면, 이국화는 원문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강조하여 독자들에게 원문의 문화적 배경을 더 깊

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원문에서 주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강조하거나 무시하여 결과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전략의 선택은 번역가가 직면한 특정 상황, 번역의 목적, 대상 독자층의 특성과 기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국과 이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에 앞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우리가 마주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사학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는 번역가들에게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을 넘어서는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번역 방식을 모색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사학적 상황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상황으로, 수사학자 로이드 비처(Lloyd F. Bitzer)가 자신의 논문 *The Rhetorical Situation*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비처는 수사학적 상황에 대해 담론을 불러내 존재하도록 하는 상황,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식(mode)으로 정의하며, 그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담론의 창조와 제시에 앞서, 모든 수사학적 상황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긴급성(exigence),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복합적인 요소인데, 결정과 행동에 제한을 받는 대상인 독자(audience) 및 화자(orator)에게 영향을 미치고 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약(constraints)이다.
(Bitzer 1968: 6)

긴급성, 독자, 제약을 『파친코』 원작에 적용해 파친코의 수사학적 상황을 파악해 보자. 첫째, 역사 전공자인 작가 이민진은 대학 시절 또래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한국계 일본인 중학생의 자살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한국의 역사적 억압 및 개인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긴급성을 느끼게 되었다. 둘째, 『파친코』의 독자는 다양한 독자층을 아우른다. 작가 이민진이 다수의 강연을 통해 모든 독자를 “한국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듯이, 이 작품의 수사학적 독자는 영어를 아는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면서 작가의 긴급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파친코』 원작의 제약 조건은 역사적 정확성, 문화적 민감성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민진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다루되,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여러 차례 퇴고 끝에 완성했다.

『파친코』 번역본과 그 수사학적 상황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이 같은 수사학적 상황에 대한 고려는 문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와 포용을 가능하게 하며, 독자들에게 더 풍부하고 다차원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재일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러한 연구 관점은 한국, 일본, 미국과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한국어를 아는 일본인과 미국인 등도 이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번역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파친코』의 두 번역본과 각각의 수사학적 상황, 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문학사상 『파친코』와 인플루엔셜 『파친코』 비교 연구

『파친코』는 한국에서 두 가지 번역본으로 출간되었다. 하나는 2018년 3월 문학사상에서 출판된 초판이고, 다른 하나는 2022년 7월에 인플루엔셜에서 출간된 개정판이다. 이 두 번역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출판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2022년 3월에 『파친코』가 Apple TV+ 오리지널 시리즈로 방영되고 시즌 1 종영과 동시에 시즌 2의 제작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개정판은 단순한 재(再)번역을 넘어서 동일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문화적 반응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저자 이민진과 번역가 이미정, 신승미는 2022년 10월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이는 이 작품이 재일조선인 가족의 다채로운 역사를 깊이 있고 정확하게 묘사하여 한국의 역사적 어려움을 상징하고, 전 세계적인 이주민, 즉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평가되었음을 입증한다. 하지만 각 번역본의 수사학적 상황에 큰 차이점이 있고, 두 번역가가 채택한 번역 전략 적용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각 번역본이 지니는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 장은 문학사상 『파친코』와 인플루엔셜 『파친코』의 단순한 번역 문장 비교에서 벗어나, 번역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디아스포라 글쓰기로서의 이민진 소설 파친코 번역’을 주제로 한다. 이는 단순히 한국인 독자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어가 모국어인 아니지만 한국어를 아는 다양한 문화권의 모든 독자

들까지 포괄하는 번역 목표를 추구한다. 또한 이 같은 접근법은 디아스포라 문학과 그 목표 방향성에 부합하는, 더 넓은 범위의 접근을 시도한다. 『파친코』 한국어판을 수사학적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기준(긴급성, 독자, 제약)으로 나누며 베누티의 자국화 및 이국화 적용 방식을 통해 번역본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차이가 작품의 수용과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편의상 문학사상 『파친코』는 TT(문), 인플루엔셜 『파친코』는 TT(인)로 표기한다.

3.1 긴급성(exigence)

비치가 언급한 긴급성이란, 의사소통을 시작하게 만드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상황, 문제이다. 죽음, 자연재해는 긴급성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수사학적 상황에서의 긴급성으로 보긴 어렵다. 비치는 담화(discourse)를 통해 긍정적 수정(positive modification)이 가능한 문제들만을 수사학적 긴급성으로 간주했다 (Bitzer 1968: 6-7). 『파친코』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 이민자 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수사학적 긴급성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문학에서의 긴급성은 주로 작품이 다루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이 높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이 작가가 『파친코』를 쓰기 시작한 이유 역시 “일본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삶 대부분이 경시당하고 부인당하고 지워진다는 이야기를 글로 써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한국의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기 위한 소명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파친코』는 일제 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국인들의 역사적 맥락을 탐구한다. 소설은 부산 영도의 삶을 배경으로 시작하여,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안정성을 그려낸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등장인물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며, 개인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적 서술을 넘어서 수사학적 긴급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는 예가 된다. 이는 비치가 말한 수사학적 긴급성이 담화를 통해 긍정적인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목 『파친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작가 이민진은 지

난 8월 방영된 KBS 다큐인사이트 <파친코와 이민진>에서 이 제목이 제일 한국인들, 특히 파친코 업계에서 일하는 이들의 삶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제일 한국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며,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마치 파친코 게임처럼 불공정한 인생의 게임을 강요받았다. 작가는 파친코를 인생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유로 사용했고 “아무리 인생이 불공정하다고 해도 불공정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무시하고 그냥 계속 살아야 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감각한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 불공정한 것이 명백하다.’ ‘당신은 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길 바란다.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파친코를 이런 비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라고 밝히며 이 제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작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재일교포들이 겪는 다양한 도전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언급했다. 작가는 “고통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고통은 인간의 조건이다. 종종 보면 서구인들은 ‘고통의 회피’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의 와중에도 누구나 심오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한국 독자들이 지금 그들의 유산이 매우 힘겨운 투쟁의 결과라는 것, 그 고통이 반드시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은 로이드 비치가 언급한 긍정적 수정의 예로 볼 수 있으며,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주제와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사학적 상황을 고려한 자국화 전략은 트라우마적 표현을 타국 문화의 독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국화 전략은 원문의 문화적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라우마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트라우마 연구는 번역이 개인과 민족의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분석해 그 전략에 따라 번역의 감정적 선을 목표 독자에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먼저 살펴볼 문장은 작가 이민진이 이 소설의 주제문(thesis statement)이라 밝힌 소설 첫 문장이다.

예시(1)

ST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TT(문) 역사가 우리를 망쳐왔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TT(인)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두 문장을 가르게 한 가장 핵심 단어는 ‘history’와 ‘has failed’이다. TT(문)는 역사가 직접적으로 주체로서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가지며, TT(인)는 주어인 “역사”를 주제로 제시하면서도, 역사의 역할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TT(인)는 역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단순히 언급하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반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TT(인)와 차별점이 있다. 또한, TT(인)는 ST의 통사 구조에 매우 충실하다. 예를 들어, TT(인)는 원문의 콤마(,)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첫 번째 절(History has failed us)이 끝나고 두 번째 절(but no matter)이 시작되기 전, 잠시 호흡하게 하는 효과를 살려냈다. 이 문장에서 콤마는 두 절의 연결을 강화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두 절 사이의 전환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TT(인)는 원문의 문장 구조와 의미를 보존하면서, 각각의 단어를 직접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로 대체한 번역문으로, 모사(calque)의 좋은 예로도 볼 수 있다.

다음은 KBS 다큐인사이드 <파친코와 이민진>에서 작가 이민진이 손꼽은 이 소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 해당 원문에 대한 두 번역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예시(2)

ST Ikaino was a misbegotten village of sorts, comprised of mismatched, shabby houses. The shacks were uniform in their poorly built manner and flimsy materials. Here and there, a stoop had been washed or a pair of windows polished, but the majority of the facades were in disrepair. Matted newspapers and tar paper covered the windows from inside, and wooden shims were used to seal up the cracks. The metal used on the roof was often rusted through. The houses appeared to have been put up by the residents themselves using cheap or found materials-not much sturdier than huts or tents. Smoke vented from makeshift steel chimneys.

It was warm for a spring evening; children, half-dressed in rags, played tag, ignoring the drunken man asleep in the alley. A small boy defecated by a stoop not far from Yoseb's house.

Yoseb and Kyunghee lived in a boxlike shack with a slightly pitched roof. Its wooden frame was covered with corrugated steel. A plywood panel with a metal covering served as the front door.

“This place is fit for only pigs and Korean,” Yoseb said, laughing. “It’s not quite like home, is it?”

“No, but it’ll do very well for us,” Isak said, smiling.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we’ll be causing.”

TT(문) 이카이노는 일종의 잘못 만들어진 마을이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판잣집들은 모두 똑같이 값싼 자재들로 영성하게 지어져 있었다. 현관 계단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거나 창문을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은 집도 군데 군데 있었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다. 무광택 신문지와 타르지가 창문 안쪽을 덮고 있었고, 지붕에 사용된 금속은 녹슬어 있었다. 집들은 거주자들이 값싼 자재나 주운 자재로 직접 지어 올려 오두막이나 텐트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시로 만든 강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봄날치고는 따뜻한 저녁이었다. 녀마를 반쯤 걸친 아이들은 술에 취해 굴목에서 잠든 남자를 무시한 채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요셉의 집에서 멀지 않은 현관 계단에서는 어린아이가 변을 보고 있었다.

요셉과 경희는 지붕이 약간 뽀족한 상자 같은 오두막집에 살았다. 오두막집의 나무들은 골이 진 강철로 덮여 있었다. 금속 덮개가 있는 합판이 현관문이었다.

“이곳은 돼지들과 조선인들만 살 수 있는 곳이야.” 요셉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고향 집 같지 않지?”

“아니,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불편을 끼쳐서 미안해.”

TT(인) 이카이노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마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판잣집들은 하나같이 조잡한 자재로 형편없이 지어져 있었다. 현관 입구 계단을 물청소하거나 창문을 닦아놓은 곳도 드문드문 있었지만, 대부분의 집 외관이 수리도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엷겨 붙은 신문지와 타르지를 창문 안쪽에 붙여 가렸고, 갈라진 틈을 막으려고 나무췌기를 박아놓았다. 합석지붕은 대체로

녹슬어 구멍이 나 있었다. 집들은 싸구려나 주운 재료로 거주자들이 직접 지은 것처럼 보였다. 오두막이나 천막보다 더 튼튼해 보이지도 않았다. 연기가 임시변통으로 만든 강철 굴뚝에서 피어올랐다. 봄날 저녁치고는 따뜻했다. 누더기를 반쯤 걸친 아이들이 골목에서 잠든 술 취한 남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슬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요셉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현관 계단에서는 작은 남자아이가 똥을 누고 있었다.

요셉과 경희는 약간 경사진 지붕이 덮인 상자 같은 판잣집에서 살았다. 목조 뼈대에 꼴이진 함석판을 빙 둘러놓았다. 금속 덮개가 있는 함판이 현관 역할을 했다.

“여기는 돼지고기 조선인만 살 수 있는 곳이야.” 요셉이 웃으며 말했다. “집 같지는 않지?”

“그러네. 하지만 우리 잘 지낼 거야.” 이삭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예시(2)에서 TT(문)는 이카이노를 “일종의 잘못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번역하고 집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이 값싼 자재들로 영성하게,” “무광택 신문지와 타르지가 창문 안쪽을 덮고 있었고, 지붕에 사용된 금속은 녹슬어 있었다.” 등으로 번역했다. 이 번역문은 판잣집 자재를 문장의 주어에 위치시킴으로써 집들의 열악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TT(인)는 이카이노를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마을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번역했다. ‘~라고 할 수 있었다.’ 식의 번역은 번역가의 추정과 판단이 명확하게 내비쳐진 표현으로, 번역가가 조금 더 감정적이고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TT(인)는 이카이노 마을 집들에 대해 “영어 붙은 신문지와 타르지를 창문 안쪽에 붙여 가렸고, 갈라진 틈을 막으려고 나무췌기를 박아놓았다”라고 번역하며 판잣집 자재보다는 집을 만든 사람의 동작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TT(인)는 독자들에게 이카이노 마을에 대한 더 깊은 사색을 유도하며, 단순한 묘사를 넘어서 마을의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요구한다. 또한, 사람들의 동작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은 판잣집의 물리적 상태보다는 거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한다.

예시(3)

ST “Why does Japan still distinguish the two countries for its Korean

residents who've been here for four fucking generations? You were born here. You're not a foreigner! That's insane. Your father was born here. Why are you two carrying South Korean passports? It's bizarre.”

TT(문) “왜 일본은 아직도 조선인 거주자들의 국적을 구분하려고 드는 거야? 자기 나라에서 4대째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말아야. 넌 여기서 태어났어. 외국인이 아니라고! 이건 완전 미친 짓이야. 네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왜 너희 두 사람은 아직도 남한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거야? 정말 이상해.”

TT(인) “왜 아직도 일본은 여기서 4대째 살고 있는 조선계 주민들을 두 나라로 구분하지? 넌 여기서 태어났어. 외국인이 아니라고! 정말 미친 짓이야. 너희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났고. 근데 왜 두 사람이 남한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해? 참 이상해.”

예시(3)는 일본의 국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장면으로, 표현의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TT(문)는 “조선인 거주자들”이라고 표현한 반면, TT(인)는 “조선계 주민들”이라고 번역했다. 우선 TT(문)의 “조선인”은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나라 사람, “거주자”는 일정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지리적 배경과 이주 상태에 중점을 둔 ‘조선에서 넘어와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도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조선계 주민들”은 조선인들의 혈통적 뿌리를 강조하고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더욱 부각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인물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가 번역가의 관점과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선택은 독자들이 인물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2 독자(audience)

비처가 주장한 수사학적 상황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독자다. 비처에 따르면, 수사학적 상황에서의 독자란, 담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변화의 매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다(Bitzer 1968: 7-8). 그리고 이는 단순히 책을 읽는 사람들과 구별된다. 『파친코』에서 수사학적 독자를 고려하는 것은

소설이 의도하는 독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 이민진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의 민감한 역사를 다루면서도 정체성, 가족 간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음식 등 인류 보편적인 주제를 풀어냈다. 이민진의 목표는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독자들이 한국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파친코』 한국어 개정판 출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작품에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하면서 톨스토이를 읽으면 러시아 사람이, 디킨스를 읽으면 영국 사람이 되듯 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 되어 한국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민진의 이 같은 언급은 『파친코』 개정판 출간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번역학적 관점, 특히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파친코』를 읽는 모든 이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이 작가의 발언은 단순한 자국화 및 이국화 전략 개념을 넘어선 수사학적 독자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며, 이는 번역 전략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방영으로 『파친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상황에서, 출판사 인플루엔셜은 문학사상 『파친코』가 판권 만료로 절판된 지 3개월여 만에 『파친코』의 새로운 번역본을 펴냈다. 이 새 번역본은 광범위한 독자층을 겨냥해야 했는데, 『파친코』 한국어판을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 기존의 문학사상 『파친코』를 읽은 후 새 번역본을 찾는 독자, 그리고 애플TV+ 드라마를 먼저 시청한 후 소설을 찾는 독자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독자층은 각각 다른 배경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개정판 번역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가가 가장 먼저 고려한 사항은 각 인물의 정체성 묘사였을 것이다. 특히 정체성 연구에서 인물의 이름은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특히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작품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름은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되거나 변형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극작가 브라이언 프리엘(Brian Friel)의 『번역들(Translations)』은 장르와 시대적 배경이 다르지만, 언어와 정체성, 식민주의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친코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작품에서 오웬(Owen)은 “우리가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평! 하고-그것이 존재하게 되니까요!”(Friel 177)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름의 번역이 단순히 언어적인 변환을 넘어서 정체성과 권력관계의 변화를 상징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관련하여, 인물의 이름과 그 이름이 어떻게 번역되고 받아들여지는지는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재구성하는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의미를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등장인물 이름, 인칭 대명사의 번역 분석은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예시(4)

ST “My sister-in-law’s a wonderful cook,” Isak said to Sunja, happy at the thought of seeing Kyunghee again.

TT(문) “형수님은 훌륭한 요리사야.” 이삭은 선자에게 형수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TT(인) “형수님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아요요.” 이삭이 경희를 다시 볼 생각에 행복한 표정으로 선자에게 말했다.

예시(4)에서 두 번역문은 자국화와 이국화의 번역 전략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TT(문)에서는 한국 문화 특유의 관계를 의미하는 ‘형수’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나, TT(인)에서는 ‘경희’라는 구체적인 개인 이름으로 표현하였다. 대상 독자가 해당 문화나 배경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경희’와 같은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인물의 신분이나 역할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주므로, 이를 효과적인 이국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TT(문)과 TT(인)의 번역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대상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TT(문)는 주로 한국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 반면, TT(인)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전 세계 독자들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번역 전략의 차이점은 두 번역본에서 사용된 인칭 대명사의 번역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시(5)

ST “Don’t be afraid of the neighbors. They’re good people. My

husband-I mean, your brother-in-law-is right to be cautious."

TT(문) “이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예요. 남편은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TT(인) “이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좋은 사람들이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선자 씨 시아주버니가 조심하는 건 당연해요..”

예시(5)에서 “My husband-I mean, your brother-in-law-is”라는 단어의 처리를 보면, 문화적 맥락의 전달에 있어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TT(문)는 “I mean, your brother-in-law-is” 부분을 생략하고 “husband”라는 단어만 번역에 포함시켰다. 이는 번역가가 한국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로 여기고 저자가 부연 설명한 의도를 배제하기로 선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반면, TT(인)는 “그러니까 선자 씨 시아주버니”라고 번역하며 저자 이민진의 세밀한 단어 선택을 반영하여, 한국의 가족 호칭 문화를 보다 충실하게 전달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파친코』는 엄밀히 말해 현대 미국 문학이다. 이민진은 『파친코』에서 “your brother-in-law”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외국 독자들에게 한국 특유의 문화적 맥락을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며, TT(인)는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제이드 세이한은 “국가 밖에서의 글쓰기(Writing Outside the Nation)”에서 개인의 망명 경험과 관련된 특수성과 이질감(displacement), 국외 거주(expatriation), 주변화(marginality) 등과 같은 개념을 폭넓게 다루며, 이를 정체성, 배제, 기억, 언어 정치, 번역, 애도의 심리와 같은 주제들과 연결하는 개념적 틀로 사용했다. 세이한은 언어와 문화적 표현의 번역 불가능성이 망명의 공간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이며, 이를 “디아스포라적 파토스(diasporic pathos)”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번역 불가능성은 특정 문화 내에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언어적 특징을 통해 드러나며, 사회적 방언과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과의 긴밀한 연결을 보여준다(Seyhan 2001: 12).

사회적 방언은 특정 문화 내에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언어적 특징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언어적 특성은 단어나 문장의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불가능성(untranslatability)”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Seyhan 2001: 13). 이는 번역가가 해당 언어와 문화를 깊

이 이해하고, 그 맥락에서 출발하여 독자가 원문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번역의 복잡성은 이민진 소설 『파친코』의 두 번역본을 비교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진다. 다음은 선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처음으로 자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선자와 두 자매의 담화 내용이다.

예시(6)

ST “Do you feel different being married?”

TT(문) “결혼하니까 기분이 다르나?”

TT(인) “혼인하니까 기분이 달라?”

예시(7)

ST “What does he call you, then?”

TT(문) “목사님이 너를 여보라고 부르나?”

TT(인) “목사님이 너를 여보라고 부르시드나?”

예시(8)

ST “You’re crazy. A man like that would never marry you. Get these stupid ideas out of your head.”

TT(문) “미쳤는갑다. 그런 남자는 절대 니캉 결혼 안 한다. 고 머리통에 든 멍청한 생각들은 다 끄집어 내빼리라 마.”

TT(인) “미쳤나. 그런 사내는 절대 너랑 혼인 안 한테이. 고 멍청한 생각 좀 머리에서 지워뿌라.”

TT(문)에 사용된 “~하िका,” “다르나?” “니,” “미쳤는갑다,” “니캉” 같은 표현들은 TT(인)에 사용된 “~하니까,” “달라?” “너,” “미쳤나,” “너랑”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어체적이고 친근한 어조로 다가온다. 특히 ‘캉’은 경상도 사람임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말씨의 하나로, 해당 지역 특유의 말씨를 최대한 살린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TT(인)는 지역 방언의 느낌을 살리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제된 어투를 사용하고 있어, 지역적 색채를 덜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차이는 TT(문)가 지역적 특색을 더욱 강조하는 반면, TT(인)는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대화 톤을 추구함

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함을 보여준다.

예시(9)

ST “Kimchi! Kimchi! Homemade kimchi! The most delicious kimchi in Ikaino! More tasty than your grandmother’s! Oish desu, oishi!”

TT(문) “김치 사이소! 김치 있어예! 집에서 만든 김치 사이소! 이카이노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 있어예! 할머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예. 오이쉬 테스, 오이쉬!”

TT(인) “김치! 김치 있어예! 집에서 만든 김치 있어예! 이카이노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 손님 할머니가 만든 것보다 맛있는 김치! 오이시데스, 오이시!”

예시(9)의 표현들 역시 앞서 언급한 세이한의 ‘디아스포라적 파토스’ 개념과 연결지을 수 있다. 디아스포라적 파토스란, 이주민이나 소수 민족 집단이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이나 경험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산과 이주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복잡한 감정과 정체성을 포함하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문맥에서 “김치”는 한국 음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상징한다. 이민자가 이국에서 고향의 음식을 판매하며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려는 행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새로운 곳에서의 삶에 대한 적응과 저항을 나타낼 수 있다. “집에서 만든 김치”, “이카이노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라는 표현은 이민자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자부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덧붙여, 위 두 번역문에서 가장 큰 차이는 “Kimchi”와 “your grandmother”에 대한 해석이다. TT(문)는 원문에 없는 “사이소,” “훨씬 더 (맛있어예)”의 의미를 더하며 김치를 판매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your grandmother”를 “할머니가”라고 번역했지만, TT(인)는 김치를 파는 행위보다는 김치라는 음식과 그것이 나타내는 정체성에 조금 더 의미를 둔 번역을 했다. 또한 TT(인)는 “your grandmother”에서 “your”를 생략하지 않고 “손님 할머니가 만든”이라 번역하며 TT(문)보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했다. 여기서 “your”의 의미를 살린 번역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직면한 도전과 그들의 대응을 반영하기에 중요한 요소

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본어와 한국어의 혼용(“오이시데스, 오이시”는 일본어로 ‘맛있다’는 뜻)은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민자가 겪는 언어와 문화의 혼합을 나타낸다. 이는 디아스포라 경험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며, 이러한 언어의 혼합은 적응과 동화,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문학 번역은 독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방언, 디아스포라적 파토스, 언어 혼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하며,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3 제약(Constraints)

제약은 작가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제한이나 조건을 말한다. 비치는 모든 수사학적 상황은 인물, 사건, 물체, 대상, 이해관계 등의 제약 요소들을 가지며, 긴급성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결정과 행동을 제약할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Bitzer 1968: 8). 『파친코』 번역가 시점에서 이는 작품의 형식, 장르, 언어적 스타일, 출판 관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파친코』 개정판은 이미 출판된 번역본이 있었기 때문에, 초판 번역본과의 차별화가 제약 요소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초판 번역본이 오역 논란과 절판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새롭게 출간된 번역본은 이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정교하고 개선된 문체와 해석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애플TV+ 방영 이후 출판된 점을 고려할 때, 드라마와 소설 사이의 차이점과 연관성을 고려해 독자들이 이질성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번역가의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는 번역본이 단순히 원작의 언어적 전환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매체의 적용 및 현대적 맥락에 맞는 해석을 제공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소설의 목차는 작품의 구조와 흐름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목차는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전달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에 대한 구조적인 제약을 나타내며, 이는 작품 전달 방식과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부분의 배열과 구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표 1>은 『파친코』 원작과 두 번역본의 1권 1장~17장까지의 목차 비교이다.

<표 1> 『파친코』 목차 비교

ST	TT(문)	TT(인)
Book I Gohyang/Hometown 1910-1933	Book 1 고향 HOMETOWN	Book 1 고향 1910-1933
1 Yeongdo, Busan, Korea	부산의 작은 섬, 영도	1 부산, 영도
2 November 1832	한겨울의 방문자	2 1932년 11월
3	젊은 목사, 이사	3
4 June 1932	운명의 남자	4 1932년 6월
5	몰래한 사랑	5
6	한수의 고백	6
7	신이 주신 선물	7
8	신의 계시	8
9	우동 두 그릇	9
10	속죄와 용서	10
11	떠날 채비	11
12 Osaka, April 1933	재회 그리고 새로운 생활	12 1933년 4월, 오사카
13	첫날밤	13
14	고난의 길	14
15	경희의 꿈	15
16	213엔의 빛	16
17	엄마가 된 소녀	17
Book II Motherland 1939-1962	혹독한 시련	2부 모국 1939-1962

<표 1>에서 볼 수 있듯, 『파친코』 원작은 원문의 각 장(Chapter)을 숫자, 날짜, 장소 위주로 명명했다. 그러나 TT(문)는 주요 지명, 인물명, 사건 등을 장 제목으로 선별해 번역가의 해석과 개입을 드러냈다. 이러한 개입은 원본에 없던 정보나 해석을 추가함으로써 번역가의 위치를 가장 많이 드러낸 경우로 볼 수 있다. 기존 소설 장 제목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전체 텍스트에 종속되어 있는 소설 장 제목은 텍스트 내부 구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독자의 해석을 제공 등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장경현 2015: 21). 장 제목의 이와 같은 역할

을 감안했을 때, 번역가는 대상 독자의 배경지식, 문화적 친숙도, 원작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고려하여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강조할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대상 독자가 특정 인물에 더 익숙하거나 관심이 있을 경우, 해당 인물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두 번역본의 장 구성 방식 차이는 목차의 선택과 배열이 작품의 흐름과 긴장감, 그리고 독자의 예상과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파친코』 원작은 총 3부 58장으로 구성되었다. 1부(1910~1933년)는 17장, 2부(1939~1962년)는 20장, 그리고 3부(1962~1989년)는 21장으로 나뉘어 한국과 일본, 미국을 넘나드는 서사 방식을 갖고 있다. TT(인)는 이와 동일하게 총 3부 58장으로 원문의 서사를 전개하고 있으나, TT(문)는 총 2부 58장(1부 26장, 2부 32장)으로 구성해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선택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들이 최종적으로 작품이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잘 보여준다.

번역의 제약 요소는 등장인물의 이름 설정 및 표기에서도 드러난다. TT(문)는 1권 첫 페이지에 “외래어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규정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작가의 요청에 따라 ‘Sunja’의 이름을 ‘순자’에서 ‘선자’로 수정하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서 주인공의 이름 ‘Sunja’에 대한 번역 차이는 ‘u’에 대한 표기 차이에서 출발한다. TT(문)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u’를 ‘우’로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해 초판을 발행했다. 하지만 이후 작가의 요청에 따라 ‘선자’로 변경했고, 이 내용을 ‘일러두기’ 하단에 표기했다. 이는 원작자의 요청과 외래어 표기법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며,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번역된 작품이 문화적 맥락 내에서 어떻게 위치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부분은 TT(문)에서 관찰된 특정 인용문의 누락 현상이다. 소설의 원작 Book II(조국, 1939-1962)와 Book III(파친코, 1962-1989) 시작 부분에 적힌 박완서의 글과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 인용 문구가 그 대상이다. 이 인용문들은 원문에서 존재하지만, TT(문)에서는 누락되었으며, TT(인)에서는 그대로 반영돼 번역되었다. 해당 인용문들이 한국 독자들에게 어렵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지만, 박완서의 인용문은 한국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인용문 누락은 출

판사의 편집 정책에 따른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러한 누락은 출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약 조건들, 예를 들어 텍스트 길이, 저작권 문제, 문화적 적합성, 출판 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자국화 전략의 전형적인 형태로도 해석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파친코』의 두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한 비교 분석을 통해 디아스포라 문학의 번역 과정에 나타나는 자국화 및 이국화 전략의 적용 및 영향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아스포라 문학은 작가가 특정한 긴박한 상황에서 담론을 통해 궁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나 주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작품이 작성된 배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번역본의 수사학적 긴급성보다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번역가는 먼저 원작의 수사학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상 언어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품을 번역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어휘 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원작의 본질과 메시지를 존중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디아스포라 문학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번역가는 자국인뿐만 아니라 ‘자국어’를 이해하는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을 수사학적 독자로 삼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非)자국적 요소들에 대한 수사학적 상황을 고려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번역가는 더 넓은 독자층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번역학 이론과 실천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제약 조건들을 사전에 고려하고, 출판사, 원저자 등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번역 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가는 자국화 및 이국화 전략의 제약 조건들을 각각 비교하여 원작의 의미와 목적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번역이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는 복합적 작업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디아스포라 문학 번역은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을 논의하기에 앞서, 수사학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 긴급성을 갖고 있는 문제 파악 및 독자와 제약 요소들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번역 과정을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작업으로 전환하며,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이러한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디아스포라 글쓰기’의 형태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의 정체성 강화 및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관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도훈 (2011) 『문장부호의 번역학: 영어-한국어 문장부호 비교와 영어 문장부호의 번역 전략』, 서울: 한국문화사.
- 김태만 (2010) 「재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트라우마」, 『동북아문화연구』 25: 374.
- 신기영 (2016)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일본비평』 (14): 22-49.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파주: 창비.
- 오태영 (2021) 「경계 위의 존재들 -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현대소설연구』 82: 377-405.
- 이상빈 (2014) 「문화번역의 텍스트적 재현과 ‘번역’: 이창래의 *Native Speaker* 와 그 번역본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4): 119-140.
- 이상원 (2011)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I Review』 1: 113-125.
- 이영호 (2023) 「확장되는 민족 역사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 이민진의 『파친코(Pachinko)』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36: 173-196.
- 이재성 옮김 (2009) 『번역이론: 드라이든에서 데리다까지의 논선』, 서울: 동인.

- 이형진 (2011) 「이창래의 *Native Speaker*의 한글번역본 비교연구 - 번역가의 두 가지 다른 시선」, 『세계문학비교연구』 (36): 131-165.
- 장경현 (2015) 「소설 장 제목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38: 195-218.
- 최문규, 김상환, 박인철, 이석구, 정진배, 임성모 (2014) 『문화, 정체성, 차이』,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Benjamin, Walter (1968) 'The Task of the Translator', *Illuminations*, trans. Harry Zohn, Frankfurt: Suhrkamp, 69-82.
- Bitzer, Lloyd. (1968) 'The Rhetorical Situation', *Philosophy & Rhetoric* 1(1): 1-14. Available at <http://www.jstor.org/stable/40236733>
- Safran, William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83-99.
- Seyhan, Azade (2001) *Writing Outside the Nationalism*, N.J.: Princeton UP.
- Venuti, Lawrence (1986)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Criticism* 28(2): 179-212.
- Venuti, Lawrence (1992) *Rethinking Translation: Discourse, Subjectivity, Ide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ed.)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분석 텍스트>

- 신승미 옮김 (2022) 『파친코 1, 2』, 서울: 인플루엔셜.
- 이미정 옮김 (2018) 『파친코 1, 2』, 서울: 문학사상.
- Minjin Lee (2018) *Pachinko 1, 2*,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Abstract]

**Translating Min Jin Lee's *Pachinko* as Diasporic Writing:
Focusing on the Rhetorical Situation**

Min-kyung Jung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intricate translation of Min Jin Lee's *Pachinko* into Korean, placing a special emphasis on the rhetorical situation encompassing the translation process. It argues that translating *Pachinko* extends beyond mere linguistic conversion, involving a deep engagement with the themes of diasporic writing, notably cultural identity and migration, which play a pivotal role in shaping translation strategies. This study highlights how translation transcends linguistic tasks and becomes integral to narrating the diasporic experience in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context. With a rhetorical framework, the research scrutinizes the strategies of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in translation, focusing on the critical need for translator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exigence, audience, and constraints inherent in the translation process. The pap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an in-depth understanding of both the source material's cultural context and the target audience's cultural landscape. It explores how this understanding influences the choice of translation strategies, ensuring that the diasporic narratives within *Pachinko* resonate meaningfully and appropriately with Korean readers. This approach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the rhetorical situation in translation, demonstrating how it effectively guides translators in bridging cultural narratives between the source and target cultures.

Keywords: rhetorical situation, diasporic writing, translation strategy, Pachinko, diaspora

주제어: 수사학적 상황, 디아스포라 글쓰기, 번역 전략, 파친코, 디아스포라

정민경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alsruda@yonsei.ac.kr

관심 분야: 문학 번역, 디아스포라, 수사학, 담화 분석

논문 투고: 2023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12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9일